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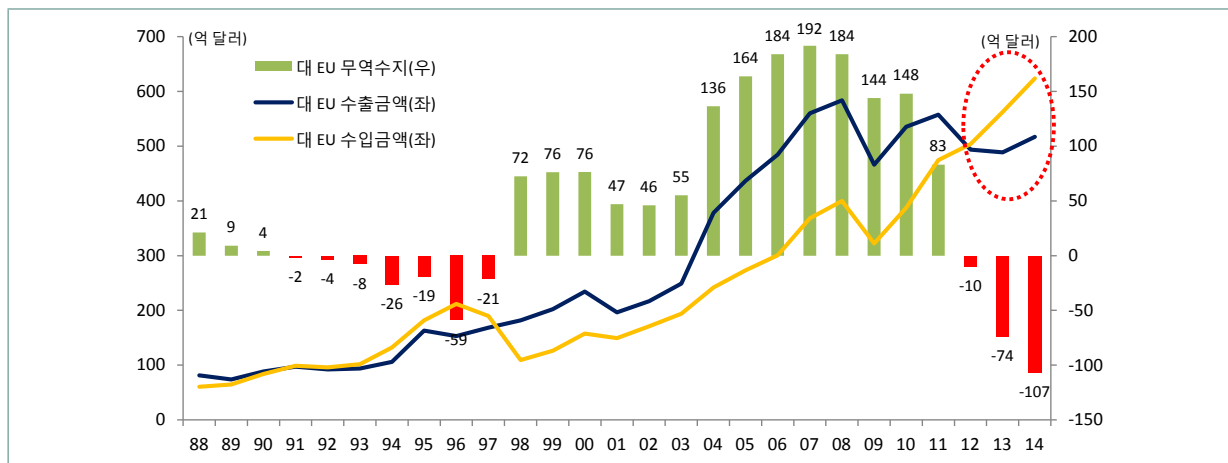
수입 급증, 수출 담보로 對EU 무역수지 적자 확대

EU에 대한 무역수지가 2012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4년 사상 최고치인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 對EU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이란 제재에 따른 영국산 원유 수입 증가와 한·EU FTA 및 소비자 성향 고급화에 따른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유로존 경기부진 및 해외생산 확대로 對EU 주력 수출품목(선박, 자동차, 휴대폰)이 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구조와 소비자 성향의 변화로 對EU 무역수지가 흑자로 다시 반전되는 것이 쉽지 않은 바, 적자규모 축소를 위해 소수 품목에 집중된 對EU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의약품, 기계, 장비 등 만성 적자 품목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對EU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4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07억 달러를 기록
- EU에 대한 무역수지는 1998년 이래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 수출이 정체된 반면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자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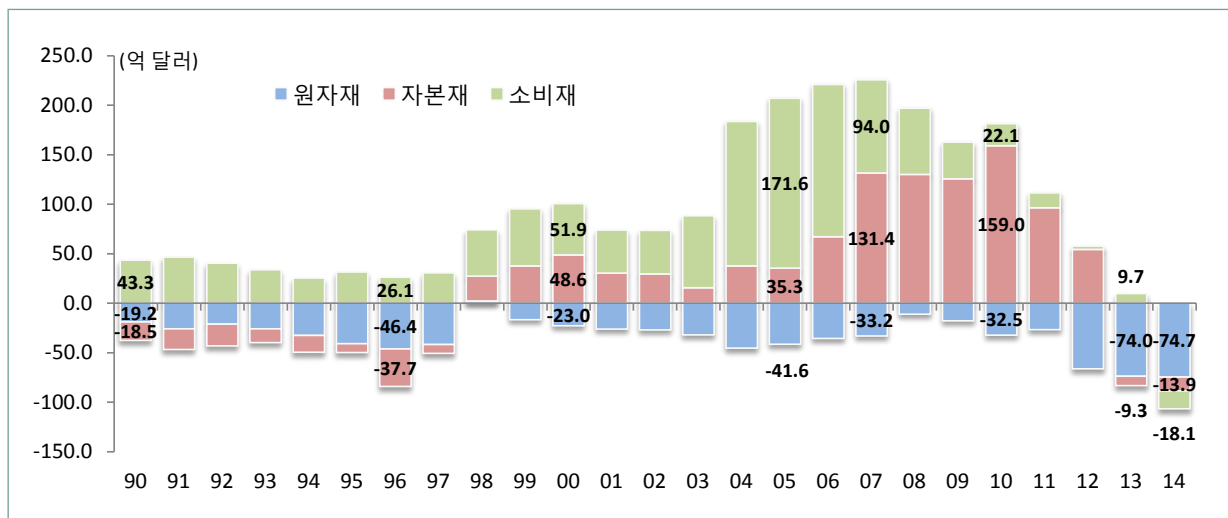
對EU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왔던 원자재의 적자폭이 커지고, 흑자를 기록했던 자본재와 소비재는 최근 적자로 반전
- 200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던 자본재는 2013년에 적자로 반전되었으며, 소비재는 2000년대 후반부터 흑자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에 적자로 전환

對EU 성질별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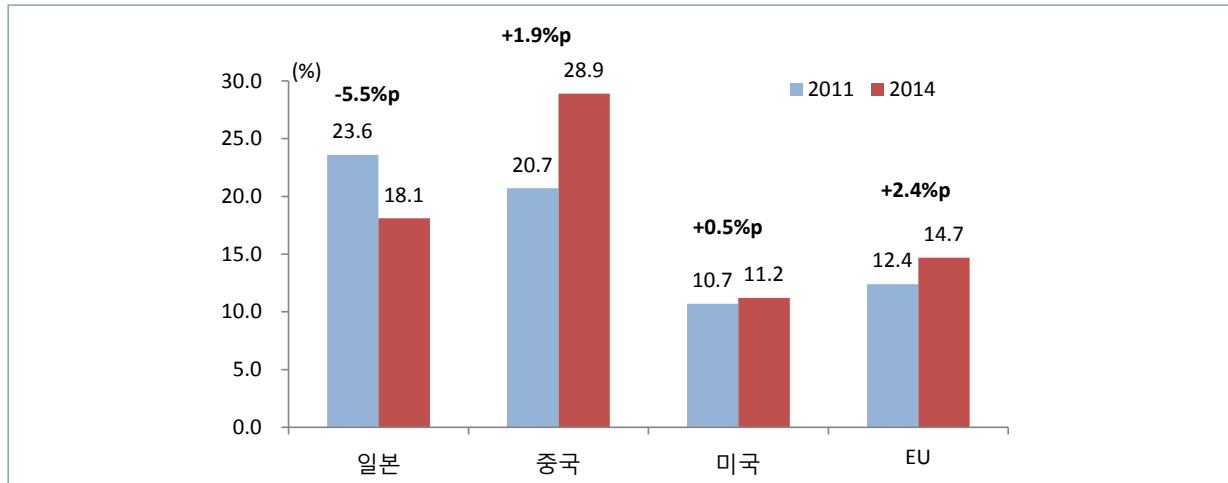
2

對EU 무역수지 적자 확대 요인 - ① 수입 측면

- (지정학적 요인) 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소로 2012년부터 영국산 브렌트유 수입이 급증하면서 우리의 對EU 무역수지 적자를 주도
 - 영국산 브렌트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 실적이 없었으나 이란 제재 이후 2012년에 수입이 전년 대비 726.5%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
 - * 영국산 원유 수입금액(억 달러): 3.4('11) → 28.1('12) → 23.1('13) → 26.5('14)
- (소비자 선호 변화 및 한·EU FTA 효과)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이후
 - ① 일본산 소재·부품 대체, ② 자동차 수입 급증, ③ 유럽산 고급 소비재 수입 증가 등으로 對EU 수입이 빠르게 증가
 - (소재·부품) 對일본 소재·부품 수입이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여 수입 비중이 2011년 23.6%에서 18.1%까지 축소된 반면, 對EU 소재·부품 수입 비중은 2011년 12.4%에서 2014년 14.7%까지 확대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에 따라 화학제품, 전기·기계 부품을 중심으로 EU 産 제품이 일본의 소재·부품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지역별 소재·부품 수입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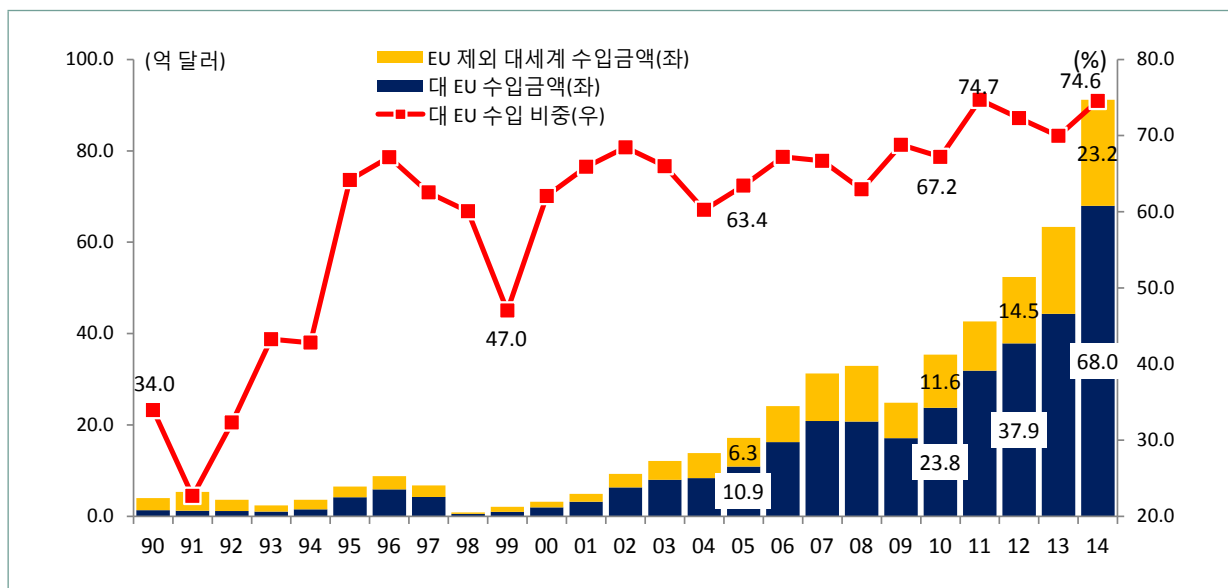
자료 : 기계산업진흥회

- (자동차 수입) 고급 수입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 선호 증가와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맞물려 수요가 증가하면서 對EU 자동차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

- 2010년부터 對EU 자동차 수입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여 수입시장 점유율 74.6%를 차지

* 對EU 자동차 수입 증가율(%): 38.9('10) → 34.0('11) → 18.8('12) → 17.0('13) → 53.4('14)

對EU 자동차 수입금액 및 비중 추이



주 : 자동차는 MTI 741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EU産 자동차에 대한 수입 증가는 FTA 이후 가격 인하 효과 및 EU 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최근 수입 고급차를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임

• EU産 자동차를 제외한 對세계 자동차 수입 증가율도 2011년부터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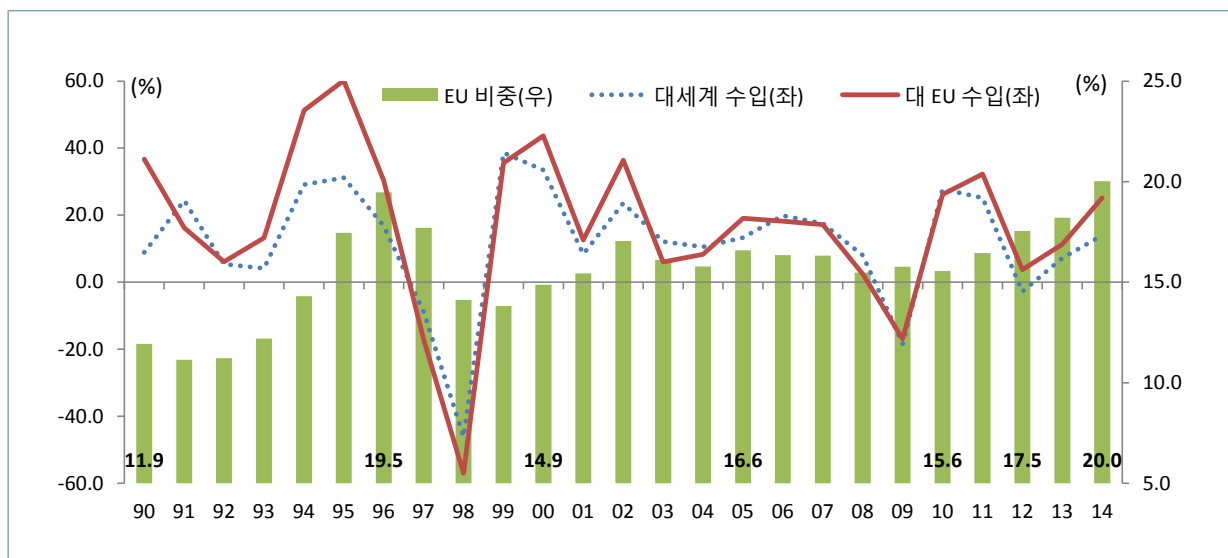
* EU産 제외한 對세계 자동차 수입 증가율(%): 34.4('12) → 31.1('13) → 21.9('14)

○ (소비재 수입) 2011년부터 對EU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對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4년 對EU 소비재 수입 비중은 1996년 이후 최고치인 20.0%를 기록

- 주로 기호식품(위스키, 와인, 맥주, 초콜릿 등), 육류(돼지고기), 화장품, 의류, 가방, 신발 등 고급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

* 주요 소비재의 對EU 무역수지(억 달러, '14): -7.2(기호식품), -6.6(육류), -6.2(가방), -5.7(화장품), -4.6(의류), -2.7(신발)

對세계 및 對EU 소비재 수입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특히, 2014년에 對EU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FTA와는 무관한 품목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도 기인

○ 2014년에는 항공기 및 부품, 천연가스, 금제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에 크게 기여

對EU 품목별 수입 증가 기여율 및 무역수지(2014)

(단위 : 억 달러, %)

순위	수입 증가 기여율 순위					무역수지 적자 순위		
	품목	수입	수입 증가율	기여율	무역수지	품목	수입	무역수지
1	자동차	68.0	53.4	38.4	-11.0	원유	26.5	-26.5
2	항공기(부품)	17.6	95.0	13.9	-13.6	의약품	26.9	-23.7
3	천연가스	9.2	489.5	12.4	-9.2	반도체제조장비	22.8	-21.4
4	금, 은, 백금	9.0	106.8	7.5	-7.4	기계요소	25.1	-18.5
5	의약품	26.9	17.0	6.4	-23.7	원동기 및 펌프	26.2	-15.3
6	기계요소	25.1	13.7	4.9	-18.5	계측제어분석기	18.0	-13.8
7	원유	26.5	10.6	4.1	-26.5	항공기(부품)	17.6	-13.6
8	육류	6.6	59.8	4.0	-6.6	자동차	68.0	-11.0
9	합성수지	10.4	29.9	3.9	10.7	천연가스	9.2	-9.2
10	반도체제조장비	22.8	11.1	3.7	-21.4	정밀화학원료	14.7	-8.2

주 :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증가기여율 = (품목별 수출의 증감액/전체 수출의 증감액)*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3

對EU 무역수지 적자 확대 요인 - ② 수출 측면

□ 對EU 수출은 2008년 584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경기 변동(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과 구조적 변화(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의 해외생산 확대)에 의해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까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시기별 對EU 수출 환경

	200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EU수출 (억 달러) 수출증가율(%)	378 (52.0)	560 (15.5)	584 (4.3)	466 (-20.2)	535 (14.8)	557 (4.1)	494 (-11.4)	489 (-1.0)	517 (5.8)
경기 변동	세계경제 호조기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기	유로존 위기			L자형 회복
						개도국 성장둔화			
구조적 변화	무선통신기기 및 자동차의 해외생산 지속 확대								
주요 5대 수출품목 (비중 %)	자동차 (18.0)	자동차 (15.7)	선박 (17.7)	선박 (26.6)	선박 (25.7)	선박 (22.7)	선박 (16.3)	자동차 (11.9)	선박 (12.4)
	휴대폰 (16.3)	휴대폰 (15.2)	휴대폰 (14.6)	휴대폰 (12.4)	LCD (10.1)	자동차 (10.4)	자동차 (10.6)	선박 (11.8)	자동차 (11.0)
	선박 (12.7)	선박 (13.5)	자동차 (9.2)	LCD (10.0)	휴대폰 (7.9)	LCD (6.9)	LCD (8.0)	자동차부품 (7.4)	자동차부품 (7.5)
	컴퓨터 (8.8)	LCD (6.2)	LCD (6.7)	자동차 (5.9)	반도체 (7.0)	자동차부품 (6.7)	자동차부품 (7.5)	휴대폰 (7.3)	석유제품 (5.8)
	반도체 (7.3)	반도체 (5.3)	t석유제품 (6.2)	석유제품 (5.0)	자동차 (6.4)	석유제품 (5.3)	휴대폰 (6.5)	석유제품 (6.8)	휴대폰 (5.7)

주 :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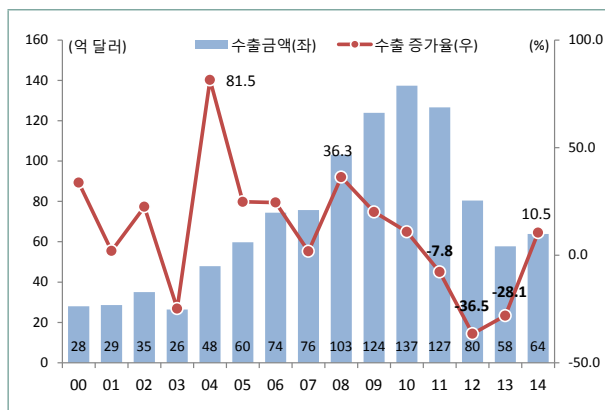
□ **(경기 변동 요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1년부터 본격화된 유로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對EU 주력 수출품목인 선박 수출이 크게 부진

○ 세계경제 호조기(2006~08년 상반기)에 수주한 선박이 2009~11년까지 인도되면서 對EU 선박 수출이 137억 달러(2010년)에 육박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시 수주가 급감하여 2011년부터 선박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2012~13년에는 두 자릿수 감소세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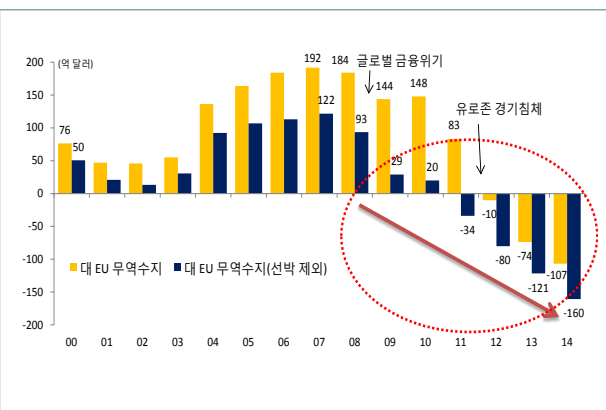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對EU 선박 수출 호조로 2010년까지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했으나, 선박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2008년부터 흑자폭이 감소하면서 2011년에 이미 적자로 반전

○ 2014년 유로존 경기가 서서히 되살아나면서 우리의 對EU 선박 수출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선박 수출 전성기에는 크게 못 미침

對EU 선박 수출금액 및 증가율



對EU 무역수지 (선박 제외)



주 : 선박은 MTI 74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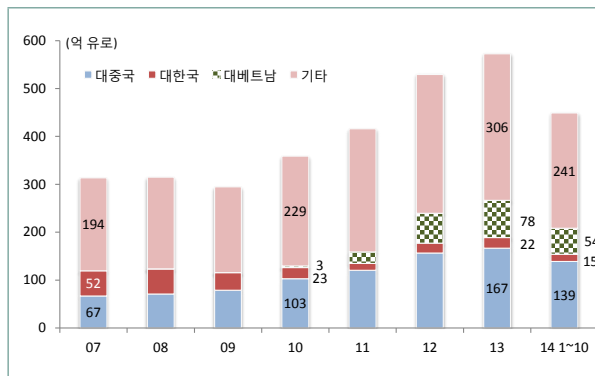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구조적 변화)** 2000년대 후반부터 무선통신기기 및 자동차 등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EU에 대한 직수출이 감소하거나 증가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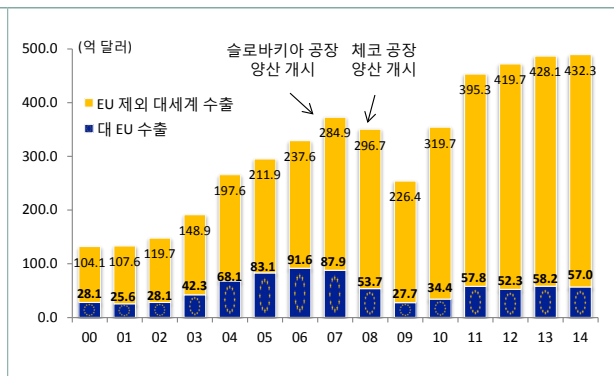
○ 2010년까지 對EU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중국,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가 이전되면서 EU의 對한국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감소한 반면, 베트남産 수입이 크게 증가

○ 2007~08년 슬로바키아 및 체코 생산공장의 양산이 시작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우리의 對EU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2011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현지 공장 양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침

EU의 주요국별 무선통신기기 수입



對EU 자동차 수출 추이



주 : 자동차는 MTI 741, 무선통신기기는 MTI 812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EU 무역수지가 2012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이유는 이란 제재에 따른 영국산 원유 수입 확대와 한·EU FTA 및 소비자 성향 고급화에 따른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한 반면, 유로존 경기침체 및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對EU 주력 수출품목(선박, 자동차, 휴대폰)의 부진에 기인
 - 특히, 2014년에 對EU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은 원유 이외에 항공기 및 부품, 천연가스, 금제품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
- 원유 등 일시적인 수입 급증 현상이 사라지고 유로존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경우 對EU 적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성향 고급화에 따른 수입 증가와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로 흑자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EU FTA에 따른 관세 인하와 우리나라 소비자 성향의 고급화가 맞물려 對EU 자동차 및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우리의 對EU 자동차 및 대표 소비재인 휴대폰 수출의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對EU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박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對EU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만성 적자 품목인 의약품, 기계, 장비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현장

고객

미래

“
무역의 길을 여는
신뢰의 동반자,
국제무역연구원
”

01. 현장중심

무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현장 보고서 및 정책 대안 제시

02.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무역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상품, 서비스,
FTA 등의 중장기 연구

03. 고객중심

회원사, 정부, 유관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중심 연구 활동

국제 무역 연구의
Think Tank



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